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변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서혜석* 공은숙** 김정은***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변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J지역의 기독교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대인관계변화와 공격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대인관계와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1단계 투입시 개인적 특성인 생활수준, 직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투입시 개인적 특성은 직분만이 영향을 미치며 전체 대인관계변화와 하위요인 중에서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이 기독교대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상담관련현장 및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중심단어 : 기독교대학생, 개인적 특성, 대인관계변화, 공격성, 위계적 회귀분석

• 논문 투고일: 2011년 10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1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8일

* 예수대학교

** 예수대학교

*** 경북외국어대학교

I. 여는 글

대학생 시기에 직·간접적 경험은 인생에서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고 영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제들을 대학 입학 이후로 미루게 되면 대학에 입학해서 발달 과제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함과 동시에 취업난을 극복해야 하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대학생들의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확장된 대인관계 변화하는 학업평가,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과거 중·고등학교시절의 타율성과 현재의 자율성 사이의 과도기로 더욱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인은 특성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²⁾ 사실 대학교 내 상담실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들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인관계이다.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주로 부모, 형제, 친구로 이어지는데 특히, 대부분의 시간들을 학교에서 보내던 청소년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학교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교육적 상황에 있어서 인간소외, 인간관계의 단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이기 때문에 친밀한 인간관계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개인의 태도와 느낌 역시, 대인관계가 그렇듯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일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되는 역동적인 것이기에 이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원만한 사회적 대인관계를 지도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요구된다.³⁾

-
- 1) 허선이,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6).
 - 2) 서혜석, “대학생의 대인관계변화 향상을 위한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한국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7권(2005): 36; 정은실, “기독대학생의 종교성향 및 대학생활적응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2010).
 - 3) 노연희, “Satir 가족치료이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이 중학생의 대인관계 및 학업응집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5호(2001): 1.

대학생활은 자아정체감을 획득하여 영적 안녕감을 유지하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공감하며, 인간관계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행복감을 맛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⁴⁾ 그러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기애나 경제문제, 또는 장래 취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영향으로 공격성이 증가하면서⁵⁾, 성폭력이나 언어폭력, 그리고 신체 심리적인 공격행동이 대학 안과 밖에서 발생되고 있어⁶⁾, 대학생들의 발달 과업 성취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공격성 증가는 우울이나 정서장애와 같은 정신건강문제로 연결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⁷⁾, 특히 자살은 우리나라 20대 인구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대 인구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⁸⁾,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도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들에게 우울증, 인지능력장애, 약물남용, 대인관계의 어려움 뿐 아니라 교내에서의 사고율이 증가하고,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살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⁹⁾, 대학생들의 정서

4) 공은숙·서혜석,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 공격성 및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3권 2호(2010): 266.
5) 임민아,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8); 김영선,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0).
6) 이은진 외,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3호(2010): 447-478; 안귀여루, “대학생의 성적 강요경험과 성격특성, 태도 및 성장기 폭력 경험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1권 1호 (2006): 47-61.
7) 송정희 외, “일 대학 신입생들이 기본장애 유병률과 위험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2권 2호(2009): 169-181.
8)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통계.
9) B. Andrews & J. M. Wilding, “The Rel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to Life-stress and Achievement in Stud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 no. 4 (2004): 509-521; A. Hysenbegasi, S. L. Hass & C. R. Rowland, “The Impact of

장애나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¹⁰⁾, 공격성을 완화하는 변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회 환경의 악화 속에 급변하고 요구되어지는 개별화의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사회생활의 초년생으로서 가치관 차이에 오는 혼란과 현실감의 괴리현상 등으로 불안과 공격성이 표출되고 이로 인하여 각종 대학생활의 부적응현상이 표출되어 심각한 폭력, 자살 등으로 연계되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 실정이다¹¹⁾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대학생활의 대인관계와 공격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독교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개인특성과 대인관계변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변인에 따른 대인관계변화와 공격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와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기독교대학생의 개인특성 변인과 대인관계변화는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Depression on the Academic Produ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Policy and Economics* 8, no. 3 (2005): 145-151.

- 10) 서혜석·공은숙,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사회성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5권 (2009): 53-70.
- 11) 서혜석, "성폭력 가해자의 자기통제감,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6호 (2006): 69.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대인관계

(1) 대인관계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는 인생초기에 접하게 되는 중요한 대인관계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인성의 측면이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일정한 패턴을 이룬다. 즉, 개인이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대인관계 상황에서 비교적 반복적이고 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인성적 특성이 대인관계라 하였으며¹²⁾, 대인관계는 개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리학적 사회학의 성향을 갖는 것으로 인간관계와 구분을 지었다.¹³⁾

대인관계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이나 특성을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적인 대인관계적 성향 또는 대인관계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⁴⁾

대인관계의 목적을 살펴보면 정신분석학과에서는 충동의 억제, 적응, 쾌락으로 신 프로이트학파는 불안의 제거, 만족, 상징적 상호작용주의학파에서는 협동, 사회적 적응, 형태주의학파에서는 의사소통조절, 형평유지, 인본주의학파에서는 도움을 주고받음, 적응, 자아실현으로 실존주의 학파에서는 의미의 추구, 통합, 주체성 확립, 행동주의학파에서는 교환, 호혜(보상, 대가)로 설명할 수가 있다.

12) 김장이, "MBTI 성격이해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와 집단응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1999),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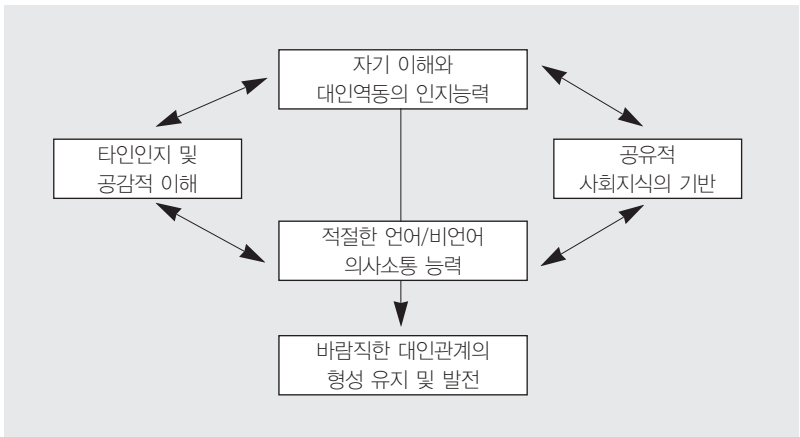
13) 안범희,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85), 40.

14) L. E. Alden, J. Wiggins & A. L. Pincus,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no. 3-4 (1990): 521.

대인관계의 기본요소는 자기이해 및 자신의 대인역동을 인지, 상황판단 및 공유적 사회지식, 적절한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들 기본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¹⁵⁾

대인관계를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고도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과정으로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지배, 상호의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했다.¹⁶⁾ 대인관계의 요소를 정리해보면 <그림1-1>와 같다.

<그림 1-1> 대인관계요소¹⁷⁾



이러한 기본요소들이 적절하게 행하여 질 때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

15) 김기정 · 이정희, “대학생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의 효과 연구”,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1999): 17-37.

16) 이형득, “자기성장 프로그램”, 계명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1995): 13.

17) 서혜석, “대학생의 대인관계변화 향상을 위한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38-40.

과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의 질과 양에 따라 우리는 자기성장 뿐 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는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나의 기대뿐만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가지는 기대를 자각하여야 한다. 나의 입장에서 타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특정사고·감정·행동이 있는 그대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한다.¹⁸⁾ 이러한 점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2) 대학생의 대인관계

일반적으로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 시기에 주변의 사람들 즉, 친구, 동료, 연인, 가족 등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발달과제이며 이 시기에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은 성장과정에서 타인과의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발달과제를 안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대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폭넓은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대학생활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활동이나 내용 중에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능력이라고 말한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의 학생생활 연구소 개인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상담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면 일부에서는 대인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⁰⁾

인간관계 있어서 대학생의 학교생활의 영역중의 하나가 또래들의 교우

18) 차명호, “타인중심적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 한국집단상담학회, 「집단상담연구」 제1권 (1995): 113-141.

19) 김선희, “집단상담이 자존감과 타인이해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7), 6.

20) 이수련,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향상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99), 12-14.

관계인데, 또래 관계의 중요한 특성은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고독감을 덜 느낀다고 보고 하였다.²¹⁾

따라서 성인기의 초기단계로 자아개념이 발달되면서 사회적 인지능력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대학생 시기에 있어 대인관계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때 형성된 대인관계가 이후 일생의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의 성격이나 형성에 새로운 인식이 절실하다.²²⁾

그러므로 대학생에게 대인관계의 활력소가 되게 하여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와 동시에 자기개방에 의한 의사소통과 자신과 타인의 이해 및 융합 상호 신뢰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

2) 대학생의 공격성

(1) 공격성

공격성의 정의는 다양한 다른 상황들에서 공격적이 되게 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준비성이라 말한다.²³⁾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고 적대감이 높으며 공격행동을 빈번히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다.²⁴⁾

분노감은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나타낸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타인이나 세상을 보는 태도로 흔히 공격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킨다.²⁵⁾

21) K. D. McGuire & J. R. Weisz,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es of Preadolescent Chumship,"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53 (1992): 1478-1484.

22) 전은희, "동아리활동과 대인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광주보건전문대학, 「광주보건전문대학논문집」 제22호 (1997): 401-417.

23) Leonard Berkowitz, *Aggression: Its Cause, Consequences, and Control* (Columbus, OH.: McGraw-Hill, 1993), 11.

24) 서수균 · 권석만,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4호 (2002): 811.

25) A. H. Buss & M. Pery,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992): 452-459.

또한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물리적·언어적 행동이라 했다. 이들 공격성 유형 중 폭행,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에 원함과 의심을 합쳐 적의성이라 하였으며, 적의성은 공격성과 일치 될 수도 있지만 공격성 반응의 부분처럼 개방적으로 언어화되지 않는 지속적인 태도로서 내적으로 강화된 공격성이라 정의하였다.²⁶⁾

본 연구에서는 Leonard Berkowitz²⁷⁾가 제안하고 있는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의성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2) 대학생의 공격성

청소년들의 분노감정은 증폭되고 청소년 폭력과 범죄는 증가하게 되는 현실이다. 청소년 폭력범죄는 청소년들의 분노감정의 극단적인 외부발산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이러한 분노감정이 내적으로 발산하는 경우에는 심한 자책감이나 우울감에 빠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²⁸⁾ 청소년 자살이 세계 1위로 우리사회는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리 올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살은 분노감정이 자신의 내부로 향해 일어나는 가장 극단적이라 볼 수 있다.

정태연·김은정·김인경의 연구²⁹⁾에서는 중학생 대상으로 공격성 지각에 대한 대인관계분석의 연구결과에 대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즉, 타인에 대한 평가치는 우월성, 지배성, 도취성과 관련성이 크고, 자기평가치는 우월성, 과시성, 지배성과 관련성이 크게 나타났다. 타인에 의한 평가치는 과시성, 지배성, 사교성이 크게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한 자아

26) C. D. Spielberger, G. Jacobs, S. Russell, & R. S. Crane,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eds.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Hillsdale, NJ.: Erlbaum, 1993), 161-190.

27) Berkowitz, *Aggression*, 11.

28) 오윤선, "청소년 분노조절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7권 (2007): 31.

29) 정태연 외, "공격성 지각에 대한 대인관계적 분석: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3권 2호(2000): 79-98

평가가 타인에 의한 평가보다 높았다.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현적 모습과 내면특성에 대해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일시적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질차원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³⁰⁾ 종교성향과 대인예민증, 불안, 적대감 등과 관련이 있다³¹⁾ 대학생 대상으로 분노조절을 위한 통합적 집단상담 효과연구에서³²⁾는 분노표현, 특성분노, 분노표출이 대인관계 적응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또한 역기능가정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연구한 공격성향분석에서 대인공격성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특유한 생물학적·사회심리학적 욕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에 욕구가 좌절되어 순기능으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³³⁾

특히,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정서 중 하나인 분노는 공격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난폭한 말씨나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게 때문에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³⁴⁾

이와 같이, 대학생에게 공격성 감소를 위한 적절한 개입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측면 뿐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0) 정태연, “친숙성 수준에 따른 한국대학생의 대인지각”, 연세대학교 미출판자료, 1999.

31) G. W. Allport & J. M.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432-443.

32) 이정숙 외, “대학생 분노조절을 위한 통합적 집단상담 효과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17권 2호(2010): 149.

33) 오윤선, “청소년 분노조절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31

34) 김태희, “분노조절 집단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분노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지원형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6).

2.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다루어질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특성 변인, 대인관계 변화 척도, 공격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표집대상은 J 지역에 소재한 기독교대학의 간호학부 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한 자에게 설문조사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324부 중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하고 총 320부만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이었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척도

Buss와 Pee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총 7문항(1, 5, 9, 13, 17, 21, 24), 언어적 공격성 총 5문항(2, 6, 10, 14, 18), 분노감 총 5문항(3, 7, 11, 15, 22), 적대감 총 10문항(4, 8, 12, 16, 19, 20, 23, 25, 26, 27) 등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형의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약간 그렇지 않다, 3 : 그저 그렇다, 4 : 약간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AQ-K(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는 모두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모든 항목을 합계한 것으로 높은 점수는 높은 공격성을 반영한다. 전체점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827$ 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변화 척도

이 도구는 대인관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Schlein과 Guerney(1971)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 척도를 문선모(1979)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전석균(1994)이 수정하여 적용한 도구로

서 전체 25개 문항으로 된 5점 Likret 척도이며, 하위영역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져 만족하게 여기는 만족도(4문항),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의사소통(4문항), 믿음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말하는 신뢰감(3문항), 사이가 가까운 느낌을 말하는 친근감(3문항), 예민한 성질인 민감성(2문항),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개방성(5문항), 사리를 분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해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점수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점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872$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공격성척도와 대인관계변화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변인에 따른 대인관계변화와 공격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독교대학생의 대인관계와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기독교대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변인과 대인관계변화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 및 해석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변화가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표 1〉에서는 조사대상자인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나이에 있어서 기독교대학생은 20세 이하가 각각 74.1%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 2학년 각각 34.4%, 35.5%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서는 중간정도의 수준이 8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신앙생활을 한 기간은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순으로 39.1%, 35.1%로 나타났다. 평소기도를 언제 가장 많이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기도 할 때가 생기면 기도한다는 응답이 43.8%로 나타났다. 평소 십일조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직분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76.6%로 나타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100%확신하는 학생은 33.8%인데 반해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학생이 65.3%로 아직 신앙에 대해 미성숙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의 경우 모태 신앙으로 인한 출석과 전도에 의한 출석이 각각 34.7%, 30.3%로 나타나 교회에 자발적으로 오는 12.2%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 간접인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주에 한 번 간다는 응답이 25.6%이었으나, 간접이 없다는 응답도 20.3%로 나타났으며 1년에 한 두 번 가는 학생도 19.4%로 나타났다.

〈표 1〉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구 분		N	%	구 분		N	%	
성별	남	37	11.6	교회가는 횟수	간적없다	64	20.3	
	녀	282	88.4		일년에 한두번	62	19.4	
나이	20세 이하	237	74.1		한달에 한번	23	7.2	
	24세 이하	71	22.2		한달에 몇번	41	12.8	
	25세 이상	9	2.8		한주에 한번	82	25.6	
학년	1학년	110	34.4		한주한번보다 더많이	44	13.8	
	2학년	112	35.5		교회출석 동기	모태신앙	111	34.7
	3학년	97	30.3			자발적으로	39	12.2
생활 수준	상	12	3.8			전도받아서	97	30.3
	중	268	83.8			기타	35	10.9
	하	36	11.3	하나님에 대한 확신	불신	209	65.3	
평소 기도 횟수	일년에 한두번	21	6.6		100% 확신	108	33.8	
	기도할 일이 생겼을때	140	43.8	신급	새신자	75	23.4	
시간정해 매일	36	11.3	학습		36	11.3		
신앙 생활 기간	1년 미만	125	39.1		유아세례	19	5.9	
	10년미만	67	20.9		유아세례후 입교	30	9.4	
	10년이상	112	35.0	세례	116	36.3		
십일조 생활	정확한 십일조	39	12.2	부모동거	모두함께 동거	281	87.8	
	십일조에 못미치게 한다.	55	1.2		사별한부모	18	5.6	
	안한다	205	64.1		부모별거	3	.9	
	십일조 이상한다.	4	1.3	교파	장로교	158	49.4	
직분	있다	64	20.0		기타	41	12.8	
	없다	245	76.6	모름	81	25.3		
				전 체	320	100		

기독교대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로교가 49.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 침례교, 감리교 등이 12.8%, 교파를 모르는 학생의 경우도 2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대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87.8%,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한 부모와 살고 있는 경

우는 5.6%로 나타났다.

2)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공격성과의 관계

〈표 2〉에서는 조사대상자인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2〉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공격성과의 관계

구분		M	SD	t/F
성	남	69.13	14.09	.149
	녀	68.77	13.77	
나이	20세 이하	68.38	13.01	2.711
	24세 이하	66.85	13.92	
	25세 이상	58.44	5.79	
학년	1학년	69.73	14.51	1.829
	2학년	66.87	11.94	
	3학년	66.67	12.61	
생활수준	상	58.16	13.67	3.851*
	중	67.63	13.09	
	하	72.19	11.70	
평소기도횟수	일년에 한두번	70.53	12.49	4.842**
	기도할 때 생겼을때	67.72	11.99	
	시간정해 매일	64.46	14.96	
신앙생활기간	1년 미만	69.75	12.85	4.034*
	10년미만	67.95	12.92	
	10년이상	64.91	13.54	
십일조 생활	정확한 십일조	62.30	14.93	2.842*
	십일조에 못미치게 한다.	66.29	14.01	
	안한다	68.76	12.43	
	십일조 이상한다.	67.50	14.84	
직분	직분	63.91	15.72	3.01**
	없다	69.84	13.14	
교회 가는 횟수	간적없다	69.92	12.04	1.527
	일년에 한두번	69.22	12.35	
	한달에 한번	69.30	12.24	
	한달에 몇번	68.31	11.38	
	한주에 한번	65.23	13.93	
	한주한번보다 더많이	65.16	15.55	

교회출석동기	모태신앙	65.81	13.01	1,327
	자발적으로	70.39	11.73	
	전도받아서	68.18	14.55	
	기타	68.42	12.17	
입교	새신자	70.79	13.16	1,768
	학습	66.52	12.64	
	유아세례	69.31	15.56	
	유아세례후 입교	66.40	9.56	
	세례	65.81	14.12	
확신	불신	70.08	13.07	-2,472*
	확신	65.07	66.00	
부모동거	모두함께 동거	67.00	12.84	3,575*
	사별한부모	75.11	13.71	
	이혼	70.81	13.60	
	부모별거	78.00	13.74	
교파	장로교	66.89	13.37	1,205
	기타	66.32	13.47	
	모름	69.51	13.62	

* $p < .05$, ** $P < .01$, *** $P < .001$

기독교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즉, 성별, 학년, 연령과 공격성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경제수준이 어려운 경우가 공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정도의 수준도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또한 평소 기도를 하는 횟수와 공격성과의 관계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일 기도를 하는 학생의 공격성이 가장 낮았으며 일 년에 한 두 번 하는 학생의 경우가 가장 높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신앙생활의 기간에 있어서는 공격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신앙생활의 기간이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낮은 공격성을 보였으며 1년 이하의 신앙생활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0$). 십일조를 내는 학생의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역시 공격성과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십일조를 꼬박꼬박하는 학생의 경우 가장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십일

* $p < .05$, ** $P < .01$, *** $P < .001$

1= 생활수준, 2=개인 기도 횟수, 3=신앙생활기간, 4=십일조, 5=직분, 6=확신,
7=부모결혼상태, 8=공격성, 9=대인관계, 10=만족감, 11=의사소통, 12=신뢰감,
13=친근감, 14=민감성, 15=개방성, 16=이해성.

* 직분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미처리 하였음

상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성은 기독교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즉, 생활수준 $r=.127$ ($p < .05$), 개인기도 횟수 $r=.168$ ($p < .01$), 신앙생활기간 $r=.164$ ($p < .01$), 십일조 $r=.164$ ($p < .01$), 직분 $r=.216$ ($p < .01$), 하나님에 대한 확신 $r=.157$ ($p < .01$), 부모 결혼상태 $r=.156$ ($p < .01$)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및 대인관계 하위변인과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는 $r=-.250$ ($p < .01$), 만족감 $r=-.189$ ($p < .01$), 11=의사소통 $r=-.117$ ($p < .01$), 신뢰감 $r=-.136$ ($p < .01$), 친근감 $r=-.218$ ($p < .01$), 이해성 $r=-.261$ ($p < .01$)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감성 $r=-.026$ 과 개방성 $r=-.074$ 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변화의 요인이 각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단계에는 기독교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는 대인관계변화척도를 투입하였다.

〈표 4〉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1단계		2단계	
	B	beta	B	beta
생활수준	4.327	.141*	1.484	.048
개인기도횟수	-.494	-.045	-.568	-.052
신앙생활기간	.073	.010	.362	.049
십일조생활	-269	.015	-.582	-.032
직분	-5.064	-.156*	-5.415	-.165*
하나님에 대한 확신	-1.850	.066	-2.509	-.085
연령	-.701	-.084	-.715	-.085
대인관계			-.224	-.195**
만족감			-.429	-.065
의사소통			.483	.087
신뢰감			-.409	-.052
친근감			-1.079	-.139**
민감성			1.427	.156**
개방성			.826	.208**
이해성			-1.389	-.280**
R^2	.083		.213	
<i>adjust R</i> ²	.060		.168	
F	3.568**		4.790***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개인특성 중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생활수준, 개인기도 횟수, 신앙생활기간, 십일조, 직분, 확신, 부모의 결혼 상태를 기독교대학생의 공격성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생활수준(=.141)과 직분(=-.156)이 있는 경우가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P < .001$). 따라서 기독교대학생들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직분이 없는 경우에 더 많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변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인관계 변화와 그 하위요인 즉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을 투입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공격성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직분(=-.165)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인관계(=-.195)는 공격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친근감(=-.139), 민감성(=.156), 개방성(=.208), 이해성(=-.280)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P<.001). 그러나 대인관계하위요인 중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의 경우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대학생들의 공격성에는 직급, 대인관계, 하위 요인 중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이 21%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기독교대학생들의 공격성에 개인 특성과 대인관계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변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J지역의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분석에 따라 논의 와 제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논의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기도를 매일하는 학생일수록, 신앙생활 기간이 길수록, 십일조를 하는 학생일수록, 교회의 직분을 갖은 학생일수록, 하나님을 100% 확신하는 학생일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일수록 공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기도를 매일 하는 학생이 기도를 매일 하지 않는 학생보다 공격성이 낮

은 것과 100% 하나님을 확신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공격성이 낮은 것은, 정은실³⁵⁾의 연구에서 기독교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내재적 성향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과 유사관계가 있으며, Allport와 Ross³⁶⁾의 연구에서는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덜하게 해주는 면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내재적 성향이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에 만족하고 즐겁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양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일수록 공격성은 낮은 것은 오윤선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어떤 가족구조를 갖추었는가에 따라 기독교소년의 공격성 수준에서 대인공격행동과 언어적 공격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변화 하위변인과 공격성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대인관계,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이해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민감성과 개방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석봉, 이성배³⁷⁾의 연구에서 종교성향과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 8개의 하위척도 중 대인예민증, 공포불안, 적대감, 불안이 부적관계를 갖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감성은 대인예민증과 관련을 지을 수 있고, 적대감과 불안은 공격성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특성에서 기독교 종교를 삶의 목적과 동기를 통해 교의를 내면화시키고 충실히 실현하여 종교를 생활화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정적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변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특성인 생활수준, 직분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

35) 정은실,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 및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12, 31.

36) Allport &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432-443.

37) 오윤선, “역기능 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 성향 분석에 따른 기독교상담 연구”,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7권(2007): 30.

격성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직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인관계변화는 공격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변화의 하위요인 중에서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태연 외³⁸⁾, 정태연³⁹⁾, 김태희⁴⁰⁾, 이정숙 외⁴¹⁾의 연구에서 일반청소년대상과 일반대학생대상으로 한 결과를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다.

2. 제언

논의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을 적게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독교 대학생의 종교생활을 통해 행복하고 신나는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 내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적 성숙을 의미하는 기독교상담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기독교대학 내에 상담창구를 통해 기독교상담 프로그램들과 심층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이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기독교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대학의 체계적인 교과과정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진다.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나 프로그램 또는 대인관계변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과를 점검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38) 정태연 외, “공격성 지각에 대한 대인관계적 분석: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3권 2호 (2000): 79-98.

39) 정태연, “친숙성 수준에 따른 한국대학생의 대인지각”, 연세대학교 미출판자료, 1999.

40) 김태희, “분노조절 집단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분노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지원형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6).

41) 이정숙 외, “대학생 분노조절을 위한 통합적 집단상담 효과 연구”, 149.

【 참고문헌 】

- 강경미. “기독교상담과 한국인의 대인관계변화”.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5권 (2006): 179-205.
- 공은숙·서혜석.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 공격성 및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3권 2호 (2010).
- 김기정·이정희. “대학생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의 효과 연구”. 서원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1999): 17-37.
- 김선희. “집단상담이 자존감과 타인이해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7.
- 김영선.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0.
- 김장이. “MBTI 성격이해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와 집단응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1999.
- 김태희. “분노조절 집단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분노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지원형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6.
- 노연희. “Satir 가족치료이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이 중학생의 대인관계 및 학급 응집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5호(2001).
- 서수균·권석만.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4호 (2002): 409-426.
- 서혜석. “대학생의 대인관계변화 향상을 위한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청 소년보호지도학회. 「한국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7권 (2005).
- 서혜석. “성폭력 가해자의 자기통제감,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6호 (2006).
- 서혜석. “교도소 재소자의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8호 (2008): 83-105.
- 서혜석·공은숙.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사회성향상을 위한 인성교

- 육 집단상담프로 그램의 효과”.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5권 (2009): 53-70.
- 송정희 외. “일 대학 신입생들이 기분장애 유병률과 위험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 「한국학 교보건학회지」 제22권 2호 (2009): 169-181.
- 신혜영·최해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 간의 관계-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2호 (2003).
- 안귀여루. “대학생의 성적 강요경험과 성격특성, 태도 및 성장기 폭력 경험의 관련성”. 한국 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1권 1호(2006): 47-61.
- 안범희.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원, 1985.
- 오윤선. “여기능 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 성향 분석에 따른 기독교상담 연구”. 한국복 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 7권 (2007): 9-44.
- 오윤선. “청소년 분노조절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 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14권 (2010): 9-34.
- 이수련.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99.
- 이은진 외.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3호(2010): 447-478.
- 이정숙 외. “대학생 분노조절을 위한 통합적 집단상담 효과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학연구」 제17권 2호 (2010): 131-154.
- 이형득. “자기성장 프로그램”. 계명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995.
- 임민아.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8.
- 전은희. “동아리활동과 대인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광주보건전문대학. 「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 제22호 (1997): 401-417.
- 정은실.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 및 대학생활적응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 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2010.

- 정태연. “친숙성 수준에 따른 한국대학생의 대인지각”. 연세대학교 미출판자료, 1999.
- 정태연 외. “공격성 지각에 대한 대인관계적 분석 :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을 중심으로”. 한 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3권 2호 (2000): 79-98.
- 제석봉·이성배. “종교성향척도(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용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1996.
- 조동윤·김광. “아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통제소재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 료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0권 3호 (2007): 31-43.
- 차명호. “타인중심적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 한국집단상담학회. 「집단상담 연구」 제1권 (1995): 113-141.
-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
- 허선이.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석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6.
- 한정희. “기독교청년의 인간관계증진을 돕기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 남대학교, 2003.
- Allport, G. W. & Ross, J. M.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432-443.
- Andrews, B. & Wilding, J. M. “The Rel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to Life-stress and Achievement in Stud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 no. 4 (2004): 509-521.
- Berkowitz, Leonard. *Aggression: Its Cause, Consequences, and Control*. Columbus, OH.: McGraw-Hill, 1993.
- Buss, A. H. & Perry, M.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992): 452-459.
- Hysenbegasi, A., Hass, S. L. & Rowland, C. R. “The Impact of Depression on the Academic Produ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Policy and Economics* 8, no. 3 (2005): 145-151.
- McGuire, K. D. & Weisz, J. R.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es of Preadolescent Chumship.”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53 (1982): 1478-1484.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eds.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Hillsdale, NJ.: Erlbaum, 1993.

【 Abstract 】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Change on Aggression among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Hye Seok Seo

Jesus University

Eun Suk Kong

Jesus University

Jung Eun Kim

Kyongb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describe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change on aggression with the sample of 320 students at a Christian University in Jeonbu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d F-test in order to get inter-reliability, the relationship and the differences between aggressi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change. The data was also analyzed by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aggression.

The results of this descriptive study were; 1) the level of economical status and the position in the church were influencing factors on the first step analysis, 2) the position in the church, sense of closeness, sensibility, openness, and understanding ability influenced on aggression of the students on the second step analysi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about influencing factors on aggressing and can be utilized for the student counseling.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ionship change, aggressio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